

“폭염 일수 평년 比 2배” 농축산대책 상황실 운영

전남도 “농업인 인명, 농작물·가축피해 최소화”

전남도는 올 여름 폭염 일수가 평년의 2배가 넘는 12~17일간 지속된다는 예보에 따라 농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9일 도에 따르면 농축산식품국장 총괄 아래 총괄팀과 초동대응팀, 식량원예팀, 축산팀, 수리시설팀 등 5팀(16명)을 구성, 시군·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조치사항을 전파하는 등 종합 상황 관리에 들어간다.

도는 야외 영농활동이 잦은 농업인들의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했다. 폭염특보 시 문자메시지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까지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고추, 참깨 등 발작물과 시설원에 작물이 시들거나 고사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경지 인근 하천에 상시 물을 채우고 간이양수장을 설치, 용수 공급과 함께 스프링클러로 살수작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과수는 햇볕데임과 마름현상 예방을 위해 송풍팬 설치와 미세 살수, 주기적 관수를 실시해야 한다.

또 가축 폐사 예방을 위해 시군에 폭염 예방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며, 폭염 특보 발효 시 소방차를 활용한 축사 자봉 물 뿌리기 지원과 축사 화재 예방 홍보도 실시한다.

전남도는 가축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한 대형 환풍기 등 시설·장비 구입비로 10억 원을 지원하고, 폭염 고조 기간인 7~8월 가축 폐사 예방을 위한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위해 14억 원을 확보했다. 또 가축재해보험가입비에 60억 원을 투입,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경호 농축산식품국장은 “폭염 등 자연재해가 불가항력이라고 하나 철저한 사전준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농업인들은 인명피해 방지와 농작물·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나도 농부다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진 지난 8일 전남 강진군 군동면 안풍마을 무논을 찾은 군동초등학교(교장 신일섭) 학생들이 낱생 처음 해 보는 모내기지만 마을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진지하게 모를 심고 있다.

한전, 5억 달러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온실가스 감축 기여

발행 만기 5년...조달 자금 국내외 신재생 사업 등에 투자

한국전력은 5년 만기, 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그린본드를 2년 연속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그린본드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발행·유통되는 채권으로 자금의 용도가 국내외 신재생사업, 신재생 에너지 효율화 등 친환경 투자로 한정된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친환경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그린본드를 발행해 신재생·친환경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발행금리는 5년만기 미국 국채금리 0.438%에 국가, 기업 신용도 등에 따른 가산금리 0.75%를 더한 1.188%로, 국내 은행이나 기업이 발행한 글로벌 달러채권 5년물 중 역대 최저수준이다.

발행예정액(5억달러) 대비 10배(52억달러)의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최초 제시 금리(1.638%)보다 0.45%포인트 낮아진 1.188%수준으로 발행하게 됐다.

이번 발행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미중 갈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펀더멘탈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와 한전의 에너지 전환 및 탈탄소화에 대한 투자자 요구를 확인한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한전은 이번 그린본드 발행으로 조달할 자금을 기존 채권에 대한 차환과 국내외 신재생 사업, 신재생 연계설비 확충,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2년 연속 성공적인 그린본드 발행으로 한전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조달채원 다변화를 통한 저금리 조달로 금융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봉우 기자

올해 첫 장마, 오늘 제주부터 적신다

기상청, 시간당 20mm 강한 비

오후 6시 전지역으로 확대

수요일인 10일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장마가 시작된다. 비는 다음날 밤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지역에 따라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비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10일 오후 3시부터 제주도 남부와 산지에 비가 시작돼 오후 6시 이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9일 밝혔다.

10일 하루 동안 제주도에는 10~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0일 오후 6시~11일 낮 12시 사이,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는 11일 오후 9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가 내리는 이들 동안 516도로, 평화로 등 중산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비로 인해 안개나 박무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나 교통안전을 주의해야 한다.

같은 기간 제주도남쪽먼바다에는 바람이 35~50m/h(9~14m/s)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1.5~3.0m로 높게 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10~11일 사이에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북상정도에 따라 강수시간과 강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스포티지·쏘울 생산 기아차 광주2공장 또 휴무

수출 전략차종인 스포티지와 쏘울을 생산하는 기아차 광주2공장의 휴무가 6월에도 반복된다.

기아차는 8일 광주2공장 추가휴무와 관련해 노사협의를 갖고 25일과 26일, 29일,

30일 등 조업일수 기준 총 4일 동안 휴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2공장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공장휴무를 진행한 뒤 이날 정상조업에 들어갔지만 추가로 공장휴무에 들어가

기로 합의했다.

앞서 2공장은 지난 4월27일부터 5월8일까지, 이어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휴무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하루 생산대수는 2000여대며, 이 가운데 2공장에서 900여대를 생산하고 있다.

정승호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